



코로나 확진자 동선 비공개로 혼란 가중

도, 중대본 지침 따라 이동경로 목록만 공개 SNS서 추정 방문지 공유되며 2차피해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변경된 중앙방역 대책본부의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대부분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도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도내에서 6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9월 23일 제주 59번 확진자 발생 이후 42일 만이다.

60번 확진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시 소재 한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제주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 다음날인 3일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

정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 방역당국은 3일부터 A씨의 방문지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했고, 1차 역학조사를 완료한 뒤 같은날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이동 경로를 목록 형태로 '도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판, 확진자 상세정보'에 공개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동선을 통해서만 몇번째 확진자가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는 지난날 중앙방역대책본부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다만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가운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는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공개하도록 했지만, 제주도는 동선공개 과정에서 접촉자 확인 중에 있는 방문지를 '00음식점'으로 유형별로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했다. 이때문에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추정만되는 방문지들이 공유되는 등 유언비어에 의한 2차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접촉자 확인중에 있는 방문지를 비공개 한 것과 관련해 다른 지역의 경우 역학조사가 모두 완료된 뒤 확진자를 통한 접촉자의 감

염이 우려되는 방문지에 대해 상호명과 시간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역학조사가 완료된 뒤 동선을 공개하기보다는 관련 동선을 도민에게 빠르게 알리기 위해 수시로 목록형태로라도 장소 유형을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 중에 있는 방문지 등 동선을 굳이 수시로 공개하지 않고 역학조사가 모두 완료된 뒤 공개해도 되지만, 도민에게 이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목록형태라도 수시로 장소 유형을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과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개선점을 찾고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원기자 ty9456@ihalla.com

공소사실 쟁점... 법정다툼 예고

송재호 의원 선거법 첫재판 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송 의원 측 공소사실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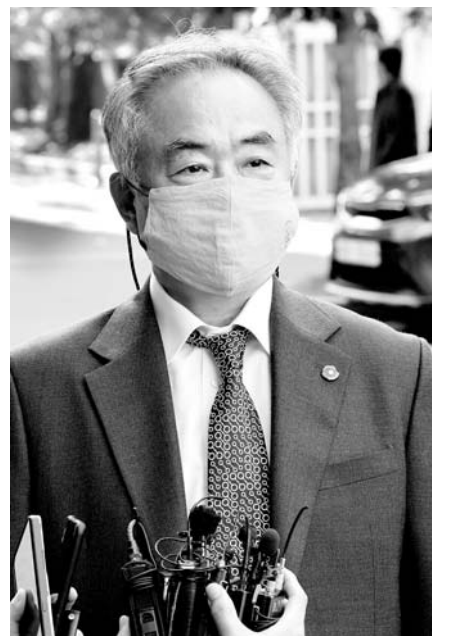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 4·3 약속 발원'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발언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선임되지 얼마되지 않아 사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 재판 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올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 의원은 이를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송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4·3추념식 참석을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음을 뽐내며, 문 대통령이 올해 추념식 때 참석하는 것은 격년제 참석 약속을 대통령 스스로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그럼에도 송 의원이 자신



송재호 의원이 4일 제주지법에 출두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을 위해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된 발언을 해, 대통령이 송 의원을 위해 돕는 관계인 것처럼 거짓된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송 의원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전임 위원장과 다르게 전문가 자문료를 새롭게 만들어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마치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봉사한 것처럼 해석되는 무보수 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무원 보수 규정 상 보수는 월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 것이라며 송 의원이 수당 성격의 자문료를 받았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범계 의원의 '민중당이 송재호를 지킨다'는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삼권분립, 법과 양심, 불편부당 등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의 다음 재판은 12월 2일 열린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故 김문성 해병대 중위 명예도로 표지석 제막식 4일 서귀포시 효동동 주민센터 앞에서 한국전쟁 당시 도출산 전투에서 전사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김문성 해병대 중위의 명예도로 표지석 제막식에서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은종일 돌봄법 철회하라"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성명

민중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은종일 돌봄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야기한 '은종일 돌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법은 오히려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법안이 될 것이다. 경험과 인프라, 재정 등이 갖춰지지 않은 지자체가 초등돌봄교실을 민간위탁으로 맡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초등돌봄 정책은 교육복지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학교의 기능을 수업으로만 축소한다면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다. 모든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6일 제주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은 이제라도 입장을 바꿔야 한다"며 거듭 은종일 돌봄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교사노동조합은 돌봄전담사들의 파업기간 대체근무는 없다고 못박았다.

송은범기자

"선박사고 셋중 한건꼴 겨울철 발생"

최근 3년 제주해역 사고 분석

해양 사고가 빈발하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해역이 선박 화재 등의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제주해역에서 사고를 당한 선박은 1387척으로 이중 34%인 477척이 겨울철에 피해를 입었다. 또 최근

3년간 제주해역서 발생한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53명 중 75.4%인 40명이 겨울철에 변을 당했다.

겨울철에 사망 또는 실종자가 많은 이유는 겨울에는 해상 기상이 나쁜 날이 많고 수온이 낮아 생존 확률이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가 지난 2017년 3척에서 2018년 4척, 지난해 7척으로 해마다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 대부분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인 FRP(섬유 강화 플라스틱)로 만들어져 한번 불이 붙으면 큰 불길과 함께 유독가스를 뿜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 화재는 오래된 전선이 합선되거나, 배전반, 난방기 등 전기설비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화재를 예방하려면 엔진 부위 중 고열 부위에 대한 보호조치, 오래된 전선 교체, 배터리 점검, 전열기·취사도구 취급 주의 등의 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평화로서 2중충돌 교통사고로 3명 사상

평화로를 달리던 스타렉스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면서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 교차로 인근 평화로에서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향하던

스타렉스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포터트럭과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포터트럭 운전자 A(26)씨가 숨지고 스타렉스 운전자 B(60)씨와 SUV 운전자 C(50)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행사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중진식 컷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감골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허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농장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